

광주시 농업인 공익직불금 대상 확대

올 149억원으로 지원 늘려

4월28일까지 신청 접수

전략작물 ha당 최대 430만원

광주시가 2023년 공익직불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올해 시행 4년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와 선택형 공익직불제(전략작물직불, 친환경농업직불, 경관보전직불 등)로 나뉘는데,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 지급대상 농업인이 대폭 확대된다.

특히 논에 밀,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는 오는 4월 28일

까지다. 2월은 비대면 간편 신청기간으로 대상 농업인에게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하면, 스마트폰, 피시(PC),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신청하면 된다. 3~4월은 방문 신청기간으로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는 2017~2019년 중 1회라도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이 규정이 폐지되면서 이 기간에 직불금 지급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다.

선택형 공익직불금도 2월부터 4월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중 친환경농업직불금은 3월부터 4월까지, 경관보전직불금은 4월에 각각 받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전략작물직불금은 2월부터 3월까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해 논에 밭쌀 대신 밀, 콩, 조식료,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ha당 50만~430만원을 지급한다.

전략작물을 논에 이모작(동계·조식료+하계

논콩·가루쌀) 할 경우 ha당 250만원을 지급하고, 하계에 논콩이나 가루쌀을 단일재배하면 ha당 100만원, 하계조식료 재배 시 ha당 430만원을 지급한다. 동계에 기존 논활용직불 대상작물인 밀, 호밀,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면 ha당 50만원을 지급한다. 가루쌀은 생산단지 지정받아 재배한 농지만 해당된다.

광주시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내용은 공익직불 콜센터(1644-8778) 또는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남택송 광주시 생명농업과장은 "직불금 대상자들은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신청하고, 영농일지 작성,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운영 광주주거복지센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가구 2배 늘려

120가구 20만원씩 지원

광주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광주광역시 종합 주거복지센터'는 "난방비가 급등함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의 연료비 지원가구를 60가구에서 총 120가구로 확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2021년 개소한 광주주거복지센터는 그동안 주거복지사업 중 하나로 주거취약계층의 임대료, 연료비, 주거환경개선 등 다양한 주거비 직접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연료비 지원 가구 수를 60가구 늘려 총

120가구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연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광주주거복지센터 개소 이후 가구당 각 20만원 상당의 연료비 현물지원(연탄, 경유 등)을 해왔으며 지난해 말까지 총 190가구에 연료비 지원을 완료했다.

광주도시공사 정민곤 사장은 "이러적인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주거취약계층분들이 이번 확대 지원으로 힘을 얻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에 보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종합주거복지센터(1577-7296)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수출진흥자금 30억 용자 지원

중소 제조업 대상...업체당 3억원

광주시는 "중소 수출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해외판로 개척 등 수출 관련 사업에 필요한 30억원 규모의 수출진흥자금을 용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용자 지원 대상은 광주에 분사 및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체로,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거나 2022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 참가 등 수출 관련 사업 참여 업체다. 2021년도, 2022년도에 지원받은 업체는 제한된다.

용자 대상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 활동 및 전시회

참가, 해외규격 인증 획득, 디자인 개발, 자기상표 등록 등 수출 관련 사업이다.

자금은 업체당 3억원을 지원하며, 2년 거치 일시상환(변동금리) 조건이다.

수출진흥자금 용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용자를 받을 때 2.12%(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의 10% 이상 감소한 기업은 1.62%)의 변동금리 적용을 받는다. 용자 지원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고, 오는 22일부터 3월 17일까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금관리시스템에서 비대면 접수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3~7년 창업기업 '스케일업' 돕는다

중기부 공모 선정, 166억원 확보

광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2023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은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의 도약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을 위해 사업화자금,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후속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

으로 올해 41억 5000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4년간 국비 166억원을 지원받으며, ▲글로벌 역량강화 ▲신산업분야 일자리창출 ▲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 ▲유니콘기업 발굴·육성 등을 중장기 전략과제로 삼아 창업기업 성장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17년부터 6년 간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사업화지원 136개사, 고용 868명, 매출 2940억원, 투자유치 323억원, 수출 143억원 등의 성과를 거뒀다.

/박진표 기자 lucky@

시 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 안전사용 의무교육 실시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이용자의 안전한 농기계 사용을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총 12회 '임대농기계 안전사용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내용은 ▲농기계임대사업 이용 안내 ▲농기계 사고사례 안내 ▲농작업 근골격계 질환 예방

▲농기계 교통 안전운행 교육 등이다.

교육대상은 임대농기계 (예비)사용자 1200여명이다. 참가 신청은 교육 해당 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화(농기계팀 062-613-5302-3)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환경공단 노후설비 교체 하수처리 효율 높인다



김성환(가운데)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이 최근 제1하수처리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광주환경공단은 제1·2하수처리장 처리설비의 효율개선과 방류수질 안정화를 위해 총 40개 사업에 85억원(국비 15억원)을 투입, 노후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립도서관 10월까지

'빛고를 책 읽는 시민' 모집

다독자 선정해 시상·혜택

광주시립도서관은 "시민의 독서의욕을 높이고 책 읽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빛고를 책 읽는 시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빛고를 책 읽는 시민'은 광주지역 25개 공공도서관이 협력해 도서관 이용 시민 중 책을 가장 많이 읽은 다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공공도서관에서 다독자를 추천받아 도서관 추천 실적이 높은 순으로 선정해 광주시장상을 수여하고, 2024년 1년 동안 도서관 이용 권수 및 대출기한 확대, 선정자 대상 특별 프로그램 운영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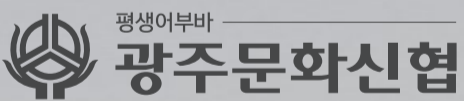
가족독서운동 캠페인의 하나로 2013년 처음 시작된 '빛고를 책 읽는 시민' 사업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게 시립도서관측의 설명이다.

2023년 '빛고를 책 읽는 시민' 참여 희망자는 10월까지 광주지역 공공도서관 자료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빛고를 책 읽는 시민 담당(062-613-7735)에게 문의하거나 광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송경희 시립도서관장은 "책 읽는 시민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이 책을 가까이하고, 도서관 이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대지점, 동광주지점, 각학지점

